

## 종격동내 광범위 림프절 전이와 중요 혈관침범을 보인 국소진행성 분화갑상선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장항석 · 남기현 · 박정수

분화갑상선암은 공격성이 덜하고 천천히 자라는 종양으로서 예후가 좋으며 주변조직으로의 침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고자에 따라 최대 21%까지 주변 조직으로의 침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망하는 환자들의 대다수에서 국소 재발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분화갑상선암이 국소진행을 보여 경부의 중요 기관을 침범하거나 중요혈관을 침습한 경우, 종격동내 림프절 전이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치료를 포기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분화갑상선암은 적극적인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후 보조요

법을 시행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고, 국소진행, 혈관침범 등에 의한 증상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수술과 보조요법 등 가장 유리한 치료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처음 수술 당시 완벽한 종양의 제거를 목적으로 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저자들은 종격동 내로 심한 전이를 보였던 분화갑상선암에서 흉골절개 후 종격동의 림프절 광청술을 포함한 적극적인 수술을 통해 성공적인 치험을 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